



# 肉鷄 및 鷄卵의 生産費에 對한 調査研究

〈1979. 1. 1~1979. 6. 30〉



尹 孝 稷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最近 數年間 人口의 增加와 所得水準 向上에 따른 食生活패턴의 變化로 畜産物需要가 增加함으로써 養鷄業은 急進的인 成長을 이루었다.

특히 養鷄業은 적은 資本의 投入으로 生産이 可能할 뿐만 아니라 資本의 廻轉速度가 빠르고 大規模의 機械的 管理가 可能하기 때문에 他畜産業에 比하여 迅速히 發展될 수 있었다.

둘이켜 보면 過去 우리나라의 鷄肉生産을 採卵用老鷄가 主된 供給源이었으나 1962年 以後 牛肉과 豚肉生産이 減少되고 美國剩餘農産物의 導入으로 因한 低廉한 飼料의 供給 및 外國으로 부터의 優秀한 種鷄의 導入과 이와 併行하여 國民所得水準이 急激히 向上 됨에 따라 短期 大量生産이 可能한 肉鷄

生産이 1965年을 前後하여 急速히 專業化하게 되어 肉鷄生産이 크게 成長하였다.

또한 鷄肉生産에 있어서도 過去 農家副業形態의 生産体制가 支配的이었으나 1960年代에 企業化의 與件이 造成되므로써 專業的 大規模의 採卵農家數가 크게 增加되어 採卵鷄의 企業化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따라서 닭의 飼育首數는 1965年 以來 10年 동안 2倍로 擴大되었고 鷄肉과 鷄卵生産량도 各各 3.8倍와 4倍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肉鷄 및 採卵業이 過去와 같은 높은 成長率을 앞으로도 계속 維持해 나가는 데는 여러가지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養鷄業은 他畜産部問과는 달리 大部分 企業化 되어 있고 養鷄業이 企業으로서의 存立可能性은 利潤擴保에 있음으로 過去와 같이 美國의 剩餘農産物의 低廉했던 供給으로 因한 利潤擴保가 可能할 것인가가 커다란 問題이다.







## II. 採卵養鷄의 經營成果

### 1. 調查農家の 概況

#### 1) 採卵鷄의 飼育規模別 農家分布

採卵鷄 調查農家の 飼育規模別 農家戶數를 보면 表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首未滿이 16.7%인 5戶이고 501~1,000首規模의 飼育農家와 1,001~2,000首規模의 飼育農家가 各各 26.7%인 8戶이며 2,001~5,000首規模의 飼育農家가 16.7%인 5戶, 5,000首以上の 飼育農家가 13.2%인 4戶이다.

한편 勞動力의 年間投下量을 보면 100首當 平均 135.5時間이었으며 自家勞動과 雇傭勞動의 比率은 83%와 17%를 나타내어 自家勞動이 支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 2) 產卵率別 農家分布

調查農家の Hen Day Base에 依한 年平均 產卵率은 65.1%이었으며 이를 規模別로 살펴보면 表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產卵率이 55% 以下の 農家數가 13.3%, 56~60%의 產卵率을 나타내는 農家數가 16.7%, 61~65%의 產卵率을 나타내는 農家數가 23.3%, 66~70%의 產卵率을 維持한 農家數가 가장 많은 26.7%이며, 70% 以上の 產卵率을 보이는 農家數가 20%이었다.

한편 調查農家の 平均 育成率을 보면 91.2%로서 아직도 1950年代 美國의 廢死率 10%의 水準이며 美國은 1960年代 廢死率을 3%로 大幅 減少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1969年에 10.6%에서 겨우 1%未滿의 減少를 가져 왔으므로 아직도 우리나라 養鷄業은 量的인 發展은 가져 왔으나 質的인 發展을 가져 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生産效率의 低下를 招來하는 要因을 正確히 把握하여 이러한 沮害 要因을 除去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 2. 產卵鷄의 育成費

產卵鷄의 育成費를 算出하기 爲한 對象期間은 鷄卵生産費 調查期間인 1979年 1月 1日 부터 1979年 6月 30日 사이에 병아리를 入雛하여 이 期間에 育成이 完了된 育成鷄群으로 하였으며 育成期間을 150日로 하였다.

調查農家の 首當 平均育成費로 表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90원이었으며 이는 昨年の 首當 育成費 1,966원에 比하면 6.3%인 124원이 增加되었으며 引上率은 昨年에 比해 6.3%에 不過하다.

이와 같이 育成費의 引上率이 例年에 比하여 낮은 것은 鷄의 병아리 過剩生産으로 병아리 값이 相對的으로 引上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費目別로 살펴보면 飼料費가 51.4%인 1,098원으로 가장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나 1978년에는 52.7%인 1,058원으로 費目別 構成比는 1.3%가 引下되었다. 이러한 現象을 今年初 養鷄의 不況으로 因하여 育成에 投入되는 飼料 以外에 他 產生要素의 價格이 크게 引上 되었으며, 또한 飼料量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表II-1. 產卵鷄 育成費(首當)

(단위: 원)

費目別	區分	金 額	比 率
병아리 購入費		329	15.4%
飼料 費		1,098	51.4
勞 動 費		306	14.3
減價償却費		79	3.7
防疫治療費		34	1.6
諸材料費 및 雜費		87	4.1
資 本 利 子		192	9.0
地 代		11	0.5
費 用 計(A)		2,136	100.0
副產物收入(B)		46	
差引生産費(A-B)		2,090	





이와같은 費目別 構成比가 産卵鷄償却費를 除外하고 水道光熱費와 勞賃이 多少 커진데 反하여 全般的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에너지波動 以後 燃料費의 引上和 勞賃이 크게 上昇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鷄卵價格의 大幅의 下落으로 資本과 用役의 投下量을 節減한데 基因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鷄卵 個當 生産費는 32.29원으로서 今年度 1월부터 6월까지 鷄卵 個當 月平均 産地價格은 26.56원으로 個當 5.73원의 損害를 보게 되었으므로 今年度 採卵農家의 經濟的 被害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産地市場價格에서는 飼育規模가 적은 農家의 經濟的 被害는 더욱 큰 바 表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首 以下の 飼育農家에서는 個當 生産費가 35.88원으로 個當 9.32원의 損害를 보게 되고, 501~1,000首 規模는 個當 生産費가 34.38원으로 個當 7.82원의 損害를, 1,001~2,000首 規模는 個當 生産費 32.71원으로서 6.15원의 損害를, 2,001~5,000首 規模는 個當 生産費 31.67원으로 5.11원의 損害를, 5,000首 以上 規模는 個當 31.15원의 生産費로 4.59원의 損害를 보게 되므로서 經營規模가 크에 따라 大規模의 經濟的 有利性에 依하여 損失을 적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産卵律別 生産費와 鷄卵産地價格을 對

表II-3. 飼育規模別 生産費

(單位· 元/100個)

規模別	區分	生 産 費
500首 以下		3,588
501~1,000		3,438
1,001~2,000		3,271
2,001~5,000		3,167
5,001首 以上		3,115
平 均		3,229

比하여 보면 今年과 같은 鷄卵價格下에서는 높은 産卵率을 維持하였어도 損失을 免할 수 없었던 바 表II-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60% 以下の 産卵率에서는 個當 生産費가 35.26원으로서 個當 8.70원의 損害를 보게 되었고, 61~65%의 産卵率에서의 生産費는 34.01원으로서 個當 7.45원, 66~70%의 産卵率에서 生産費는 31.91원으로 個當 損害가 5.41원, 71% 以上에서는 生産費는 31.16원으로서 個當 4.60원의 損害를 보게 되므로서 今年과 같은 價格下에서는 높은 産卵率을 維持한다 하더라도 生産費의 補償은 不可能하였다.

表II-4. 産卵率別 生産費

(單位: 元/100個)

産卵別	區分	生 産 費
60% 以下		3,526
61~65%		3,401
66~70 "		3,197
71% 以上		3,116
平 均		3,229

한편 鷄卵 生産의 經營費의 構成內容을 보면 表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鷄卵 100個當 經營費는 2,906원 이었고 生産費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86.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採卵農家의 所得構産內容이 되는 自家勞賃은 生産費中 6.6%인 100個當 220원, 自己資本利子는 5.7%인 193원, 自作地代는 1.0%인 34원에 不過한 것이었다.

#### 4. 採卵農家의 經營成果

##### 1) 粗收入

調査農家의 戶當 平均粗收入을 飼育規模別로 살펴보면 表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首 以下の 採卵鷄 飼育農家에서는 戶當 粗收入이 1,347,400원이었으며 이中 鷄卵 販賣收入이 98%인 1,265,700원이고 副産物 收



表Ⅱ-5. 經營費와 生産費

(單位: 원/100個當)

費目別	區分	金 額	構 成 比
産卵鷄償却費		607	18.1%
飼 料 費		2,034	60.7
減價償却費		112	3.3
雇傭勞力費		73	2.2
防疫治療費		47	1.4
水道光熱費		10	0.3
修理費		3	0.1
小農機具費		1	0.03
交通通信費		5	0.15
諸材料費		3	0.1
其他雜費		9	0.27
借入資本利子		2	0.05
賃借地代		-	-
<hr/>			
經營費計		2,906	86.7
自家勞力費		220	6.6
自己資本利子		193	5.7
自己土地資本利子		34	1.0
<hr/>			
生産費計		3,353	100.0

入이 81,700 원이었다. 501~1,000 首 規模의 農家에서는 粗收入이 2,330,500 원이었으며 이中 鷄卵 販賣收入이 2,218,000 원이었고 副産物收入이 112,500 원이었다. 1,001~2,000 首 規模의 農家は 粗收入이 5,068,600 원이었으며, 이中 主收入源인 鷄卵 販賣收入이 11,630,200 원이었으며 副産物收入이 517,300 원이었고, 5,000 首 以上 規模의 戶當 粗收入은 24,684,000 원이었으며 이中 鷄卵 販賣收入이 23,665,200 원이었고 副産物收入이 1,018,800 원이었다.

이와 같이 飼育規模에 따라 戶當 粗收入은 커다란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飼育規模別 戶當 粗收益은 1978 年度와 比較하여 보면 500 首 以下가 2,910,000

表Ⅱ-6. 飼育規模別 戶當 粗收入 粗

(單位: 千圓)

規模別	區分	鷄卵販賣額	副産物收入	計
500首 以下 (450首)		1,265.7	81.7	1,347.4
501~1,000 (750首)		2,218.0	112.5	2,330.5
1,001~2,000 (1,500)		4,831.6	237.0	5,068.6
2,001~5,000 (3,500)		11,630.2	517.3	12,147.5
5,000首 以上 (7,000)		23,665.2	1,018.8	24,684.0

註: ( ) 内는 階層別 平均 飼育首數임

원이었고, 501~1,000 首 規模가 5,913,000 원, 1,001~5,000 首 規模가 16,473,200 원, 5,000 首 以上 規模가 50,837,000 원으로서 비록 6 個月에 該當되는 것이기는 하나 相對的으로나, 絶對的으로 粗收入額이 적음을 알 수 있다.

## 2) 飼育規模別 戶當 收益性

앞에서 飼育規模別 戶當 粗收入을 살펴 보았으나 이를 根據로 하여 粗收入에서 經營費를 除한 戶當 所得과 粗收入에서 生産費를 除한 純收益을 飼育規模別로 살펴보면 表Ⅱ-7에서 보는 바와 같다.

調査農家の 飼育規模別 所得을 살펴보면 500 首 以下의 農家 戶當所得은 -263,700 원이었으며 501~1,000 首 規模의 農家は -269,300 원이었고, 2,001~5,000 首 規模의 農家は -128,100 원이었으며, 5,000 首 以上 規模의 農家は -214,000 원으로서 이러한 飼育規模下에서는 所得마저 없었으며 오로지 2,001~5,000 首 規模만은 321,600 원의 所得을 올렸을 뿐이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飼育規模가 500 首 未滿에서 1,000 首 規模에서 가장 被害가 甚하였고 5,000 首 以上 規模에서도 이와 비슷한 損失을 가져왔다. 이는 小規模와 大規模 經營에서는 資本과 勞動의 效率化를 期하지 못한 데서 緣由되었고, 1,001~2,000 首 規模에서는 産卵率이 他規模에 比하여 多少 높고



表Ⅱ-7. 飼育 規模別 戶當 收益性

(單位：千圓)

規模別	區分	粗 收 入	經 營 費	生 產 費	所 得	純 收 益
500首 以下	(450)	1,347.4	1,611.1	2,044.4	△ 263.7	△ 697.0
500~1,000	( 750)	2,330.5	2,599.8	3,091.8	△ 269.3	△ 761.3
1,001~2,000	(1,500)	5,068.6	4,747.8	6,026.6	321.6	△ 958.0
2,001~5,000	(3,500)	12,147.5	12,275.6	13,403.1	△ 128.1	△ 1,255.6
5,000首 以上	(7,000)	24,684.0	24,898.0	27,543.1	△ 214.0	△ 2,859.1

높고 資本과 勞動의 效率化를 期하여 單位當 經營費를 引下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程度의 所得을 獲得할 수 있었다.

한편 飼育規模別 純收益의 內容을 살펴 보면 500首 이하에서는 697,000원의 損害를 501~1,000首 規模는 761,300원의 損害를 1,001~2,000首 規模에서는 958,000원을, 2,001~5,000首 規模에서는 1,255,600원, 5,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2,859,100원의 經濟的 損害를 보게 되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採卵業이 企業으로서의 存立 可能性은 純收益의 存在 與否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예년과 같이 純收益의 發生은 커녕 莫大한 損失을 보게 되는 價格條件下에서는 企業으로서의 採卵業은 經營을 中斷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因한 產卵鷄의 急激한 減少는 不可避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오늘날 破産되는 採卵農家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當然한 現象이 아닐 수 없으며 政策的인 配慮가 없는 限 資本의 뒷받침이 弱한 採卵農家は 倒産의 危機를 免할 수 없다.

### Ⅲ. 肉鷄 飼育의 經營成果

#### 1. 調查農家の 概況

肉鷄 飼育規模를 測定하는 데 使用되는 指標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本 調査에 있어서는

調査期間中の 初生雛 購入 首數 累計를 肉鷄 飼育規模를 나타내는 指標로 使用하였다.

初生雛 購入首數에 依한 飼育規模別 標本農家數는 表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首 未滿의 標本農家數가 12%인 5戶, 2,000~5,000首 規模의 農家數는 16.7%인 7戶, 5,000~10,000首 規模의 農家數는 19%인 8戶, 10,000~30,000首 規模의 農家數는 35.6%인 15戶이며, 30,000首 以上の 農家數는 16.7%인 7戶로서 總標本農家數는 42戶였다.

表Ⅲ-1. 飼育 規模別 標本農家分布

規模別	區分	標本農家戶數	構 成 比
2,000首 未滿		5戶	12.0%
2,000~5,000		7	16.7
5,000~10,000		8	19.0
10,000~30,000		15	35.6
30,000首 以上		7	16.7
計		42	100.0

이를 育成率別로 살펴 보면 表Ⅲ-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80% 未滿의 農家戶數가 8.7%인 4戶, 81~85%의 農家戶數는 11.3%인 5戶, 86~90%의 農家戶數는 15.4%인 6戶, 91~96%의 農家戶數는 31.4%인 13戶, 96% 以上の 育成率을 나타낸 農家戶數가 33.2%인 14戶로서 91% 以上이 64.6%인 27戶임을 알 수 있다.





表Ⅲ-2. 育成率別 標本農家分布

育成率別 區分	農家戶數	構成比
80%以下	4戶	8.7%
81~85%	5	11.3
86~90"	6	15.4
91~95"	13	31.4
96以上	14	33.2
計	42	100.0

한편 이들 調査農家の 雇傭勞動의 構成比를 보면 者家勞動의 投下가 79%이고 雇傭勞動은 21%로서 採卵農家보다 雇傭勞動의 構成비가 높다. 이는 投下勞動量이 肉鷄가 採卵鷄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肉鷄의 飼育日數는 品種과 飼育規模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으나 平均 61日이며 販賣時 生体重量은 平均 1.62kg이다.

## 2. 肉鷄生產費와 經營費

肉鷄生產費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飼育首數, 育成率, 飼料效率等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調査農家の 生体 10kg當 總生產費는 7,052 원으로서 副產物收入을 除外한 差引生產費는 6,949 원으로서 生体 kg當 694.90 원이다.

이를 費目別로 살펴 보면 表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体 10kg當 병아리 購入費가 15.9%인 1,122 원, 昨年の 22.4%인 1,427 원보다 6.5%가 引下되었는데 이는 外國의 肉用種鷄의 大量 導入으로 因한 병아리의 供給과잉에 基因된 것이며 飼料費가 58.5%인 4,122 원으로서 昨年の 55.1인 3,513 원에 比하여 3.4%가 늘어났다.

또한 勞賃의 比率은 12.7%인 897 원으로서 昨年の 10.8%인 686 원에 比하여 勞賃上昇으로 1.9%가 增加되었다. 그리고 水道光熱費가 1.7%인 122 원, 固定資本의 減價償却

表Ⅲ-3. 生產費

(單位: 원/生体10kg)

費目別 區分	金額	構成比
병아리 購入費	1,122	15.9%
飼料費	4,122	58.5
水道光熱費	112	1.7
減價償却費	193	2.7
防疫治療費	135	1.9
勞力費 { 自家	824	11.7
{ 雇傭	73	1.0
修理費	16	0.23
小農機具費	2	0.05
交通通信費	6	0.1
諸材料費	27	0.4
其他費用	9	0.13
資本利子 { 自己	348	4.9
{ 借入	38	0.54
地代 { 自己	13	0.2
{ 借用	2	0.05
費用合計	7,052	100.00
副產物收入	103	
差引生產費	6,949	

費가 2.7%인 193 원, 防疫治療費가 1.9%인 135 원 修理費가 0.23%, 小農具費가 0.05% 交通通信費가 0.1%, 諸材料費 및 其他雜費가 0.53%, 地代가 0.25%이다.

한편 調査農家の 生体 10kg當 平均 經營費를 보면 表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867 원이며 이를 費目別로 보면 飼料費가 58.5%로서 가장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병아리 購入費가 15.9%로서 昨年度の 飼料費 52%와 병아리 購入費 21%와 比較하면 병아리 購入費의 比重이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自家勞賃은 11.7%, 雇傭勞賃은 1%로서 自家勞賃은 昨年の 8.6%보다 多少 增加되었고, 水道光熱費가 1.73%인 122 원, 減價償却費가 2.7%인 193 원, 防疫治療費가 1.91%인 135 원, 修理費가 0.23%, 小農具費





그런데 同期中 肉鷄의 產地市場의 平均價格은 603.33원이므로 生産農家は 生体 kg當 91.57원의 損害를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價格下에서는 96%以上の 育成率을 維持하는 農家라 하더라도 生体 kg當 70원의 損失을 보지 않을 수 없고 80%未滿의 育成率을 維持하는 肉鷄 飼育農家は 生体 kg當 98.57원의 커다란 經濟的 被害를 免할 수 없었다.

이를 飼育規模別로 보면 2,000首 未滿의 飼育規模에서는 115.57원, 2,000~5,000首 規模는 114.57원, 5,000~10,000首 規模는 49.77원, 10,000~30,000首 規模는 67.87원, 30,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122.37원이 各各 生産費에 未達하므로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보게 된 것이다.

### 3. 肉鷄飼育의 經營成果

#### 1) 粗收入

肉鷄飼育農家の 戶當 粗收入은 鷄肉 販賣收入과 副產物收入으로 構成되어 있는 바 調査農家の 戶當 粗收入을 飼育規模別로 살펴 보면 表Ⅲ-7에서 示唆하는 바와 같이 2,000首 未滿의 規模에서도 1,455,6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2%인 1,429,400원이고 副產物 販賣收入이 1.8%인 26,200원이며, 2,000~5,000首 規模에서는 2,463,8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1%인 2,417,000원이고 副產物收入이 46,800원이며, 5,000~10,000首 規模는 7,537,300원으로서 鷄肉 販賣收入이 98.5%인 7,421,300원이고 副產物收入이 1.5%인 116,000원이며, 10,000~30,000首 規模는 15,188,1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1%로 14,899,400원이고 副產物收入이 288,700원이며, 30,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24,887,5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2%인 24,439,400원이다.

表Ⅲ-7. 飼育 規模別 戶當 粗收入

(單位:千원)

規模別	區分	鷄肉販賣額	副產物收入	計
2,000首 未滿	(1,500)	1,429.4	26.2	1,455.6
2,000~5,000	(2,500)	2,417.0	46.8	2,463.8
5,000~10,000	(7,500)	7,421.3	116.0	7,537.3
10,000~30,000	(15,000)	14,899.4	288.7	15,188.1
30,000 以上	(25,000)	24,439.4	448.1	24,887.5

이와 같은 事實에서 볼 때 飼育規模가 커짐에 따라 戶當 粗收入은 幾何級數的으로 增加됨을 알 수 있으며, 肉鷄의 販賣價格이 生産費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는 小規模의 飼育農家보다 大規模의 飼育農家가 보다 커다란 經濟的 打擊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2) 飼育規模別 戶當 收益性

以上 肉鷄의 經營費와 生産費를 算出 함으로써 이를 根據로 하여 飼育規模別 戶當 所得과 純收益을 導出하여 보면 表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首 未滿의 飼育規模에서는 戶當 所得이 11,700원이 取得되었고, 戶當 純收益은 오히려 -485,400원이었으며, 2,000~5,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28,200원이고, 純收益도 -766,900원으로서 이 規模에서는 所得과 純收入이 모두 負로 나타났다. 그리고 5,000~10,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334,500원이 發生하였고 純收益은 -1,279,500원이었으며 10,000~30,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208,500원, 純收益도 -2,934,400원이었으며, 30,000首 以上 規模에서의 所得은 -3,577,800원, 純收益도 -7,768,200원이었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飼育規模가 2,000首 未滿 및 5,000~10,000首 規模에서만 育成率과 飼料效率의 增大 및 效率的인 生産要素의 使用으로 겨우 小額의 所得이 發生했을 뿐, 他 飼育規模에서는 所得이 發生되지 않고 飼



表Ⅲ-8 飼育規模別戶當收益性

(單位：千圓)

規模別	區分	粗收入	經營費	生產費	所得	純收益
2,000首未滿		1,455.6	1,443.9	1,941.0	11.7	△ 485.4
2,000~5,000		2,463.8	2,492.0	3,230.7	△ 28.2	△ 766.9
5,000~10,000		7,537.3	7,202.8	8,816.8	334.5	△ 1,279.5
10,000~30,000		15,188.1	15,396.6	18,122.8	△ 208.5	△ 2,934.4
30,000首以上		24,887.5	28,465.3	32,655.7	△ 3,577.8	△ 7,768.2

育規模가 커짐에 따라 比例하여 損失이 많이 發生하고 純收益은 飼育規模가 커짐에 따라 比例하여 負의 純收益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企業的인 肉鷄 飼育農家는 이와 같은 利潤의 擴保는 커녕 莫大한 經濟的 損失로 飼育規模를 크게 줄이거나, 資本力이 弱한 農家는 倒産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價格條件下에서는 企業으로서의 養鷄는 存在할 수 없다.

#### Ⅳ. 結 論

以上 肉鷄 및 採卵養鷄農家의 經營實態에 對한 分析을 通하여 肉鷄 및 鷄卵의 生產費와 經營費를 算出하여 이를 肉鷄 및 採卵農家의 戶當 所得과 純收益을 밝힘으로써 今年 養鷄農家의 經營成果를 把握하였다.

무엇보다 今年은 過去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程度로 肉鷄 및 鷄卵價格이 經營費와 生產費에도 크게 未達함으로 採卵 및 肉鷄飼育農家의 赤字가 累積되어 經濟的 被害가 너무나 커서 많은 農家가 倒産했거나, 앞으로 倒産할 農家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勿論 이와 같은 價格暴落은 需要의 側面에서 볼 때 1976年 쇠고기의 大量輸入으로 이의 相對的 價格下落이 一般消費者의 쇠고기 偏重消費現象을 奮起시킨 데도 原因이 있고 에너지波動 以後 一般消費者의 消費節約運動

에도 緣由되고 있으며, 供給面에서 볼 때 1974年 以後 계속적인 養鷄 景氣의 好況과 이에 併行하여 昨年度 外國種鷄의 大量導入으로 供給量이 크게 늘어난 데 그 主된 原因이 있다.

以上 調査分析結果에 依하여 나타난 經營成果를 要略하면 採卵養鷄에 있어서 產卵鷄 首當 育成費는 2,090원이고, 鷄卵 個當 生產費는 32.29원이며 經營費는 29.06원이었다.

이를 계란 生產費의 費目別 構成比로 보면 飼料費가 60.6%, 產卵鷄 償却費가 18.1%, 勞賃은 8.8%, 資本利子가 5.86%로서 昨年에 比하여 勞賃의 比率이 크게 늘어났고 飼料費의 比重이 낮아졌다.

한편 今年 1月 부터 6月 末까지 鷄卵 個當 生產費는 32.29원이며 같은 期間의 鷄卵 平均產地市場價格은 26.56원으로 生產費에 比하여 個當 5.73원이 未達하므로써 戶當 收益性은 500首 以下の 飼育規模에서 所得이 -263,700원, 純收益이 -697,000원이었고, 501~1,000首 規模에서는 各各 -269,300원과 -761,300원, 2,001~5,000首 規模에서는 各各 -128,100원과 -1,255,600원, 5,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各各 -214,000원과 -2,859,100원으로 이들 飼育規模에서는 共히 所得과 純收益이 負로 나타났고, 1,001~2,000首 規模에서만 321,600원의 所得이 發生했고 純收益은 -958,000원이었다.



또한 肉鷄의 경우에 있어서는 肉鷄 生体 kg 當 生産費는 694.90원이었고, 經營費는 586.70원이었으며, 育成率別 生産費는 育成率 80% 未滿이 701.90원이고, 81~85% 水準이 700.80원, 86~90% 水準이 699.80원, 91~95% 水準이 997.90원, 96% 以上이 673.40원으로서 育成率이 높아짐에 따라 生産費는 조금 引下되나 96% 以上の 育成率을 維持한다고 해도 kg 當 價格 603.33원에 比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生産費를 費目別로 살펴 보면 飼料費가 58.5%로서 昨年에 比하여 3.4% 늘어났고, 병아리 購入費 15.9%로서 昨年에 比하여 6.5% 줄어 들었으며 勞賃은 12.7%로서 昨年보다 2%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今年 1月 부터 6月까지 肉鷄 生体 kg 當 生産費는 694.90원이며 同期間 肉鷄 kg 當 平均産地價格은 603.33원으로서 生産費에 比하여 kg 當 89.57원이 未達함으로써 戶當 收益은 飼育規模別로 볼 때 2,000首 未滿은 所得이 11,700원이 發生하고 純收益은 -485,400원이었고 2,000~5,000首 規模에서는 戶當 所得이 -28,200원 純收益은 -766,900원이었다. 그러나 5,000~10,000首 規模의 農家에서는 334,500원의 所得이 發生했고 純收益은 -1,279,500원이었다, 그리고 10,000~30,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208,500원, 純收益이 -2,934,400원이었으며 30,000首 以上の 規模에서는 戶當 所得이 -3,577,800원, 純收益이 -7,768,300원이었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2,000首 未滿의 飼育農家와 5,000~10,000首 規模의 農家에서 만 所得이 發生하고 純收益은 飼育規模가 커

짐에 따라 比例하여 커다란 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採卵鷄 飼育農家보다 肉鷄 飼育農家の 戶當 赤字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以上 肉鷄 및 採卵鷄 飼育農家の 經營分析에서 볼 때 供給過剩으로 因한 價格暴落이 얼마나 甚覺하며 이를 對處하기 爲한 方案의 講究와 앞으로 계속되는 飼料價格의 引上에 對한 對策을 세우지 않는 限 養鷄業의 健全한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養鷄業을 他畜産業을 앞질러 1960年代 急速한 成長을 보였으나 飼料效率, 産卵率, 育成率, 單位當 生産費는 美國의 1960年代 水準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養鷄業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여 技術的인 側面에서 生産效率의 增大方案이 講究되어야 하며, 이를 爲해서는 果敢히 進歩된 飼育技術의 導入은 勿論 優良種鷄의 育成 및 飼料質의 向上을 통한 飼料效率를 增大시켜야 하며 産卵率과 育成率을 높이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併行하여 經濟的 側面에서는 계란과 肉鷄의 流通을 改善하여 供給量을 生産者 스스로가 調節하여 價格이 安定될 수 있도록 生産体制의 水平 및 垂直統合(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언제나 飼育農民에 不利한 飼料價格의 계속적인 上昇과 肉鷄 및 鷄卵 價格의 下落勢가 늘 存在하고 있음으로 이를 克服하기 爲서해는 위에서 提示한 方案이 實現되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서 今年과 같은 莫甚한 經濟的 被害를 防止할 수 있고 健全한 發展을 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 생산조절에 힘쓰시다**